



石油時評

濠洲의
代替에너지
開發

- 石炭, 우라늄生産增大 예상
- 外資規制는 점차 強化될 듯

濠洲의 1차 에너지供給에서 차지하는 石油의 비중은 현재의 44%에서 90년에 35%, 2000년에는 31%로 저하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편 石炭의 비중은 방대한 매장량을 반영하여 현재의 38%에서 90년에 45%, 2000년에는 51%로 크게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天然가스는 현재의 11%에서 2000년에는 14%로 다소 상승할 것이지만, 水力등은 4%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엡소·오스트레일리아展望)

石油의 자급율은 현재 68%인데 80년대에는 거의 현수준을 유지할 것이지만, 90년대에 오일 셸이나 石炭液化에 의한 合成石油의 공급증대로 점차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濠洲의 석유수요는 80년의 하루 62만 배럴(1배럴은 1백59ℓ)에서 90년에 同 75만 배럴, 2000년에 同 84만 배럴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편 石油의 공급은 현재 하루 42만 배럴에서 90년에 同 51만 배럴, 2000년에 同 77만 배럴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바스海峽를 중심으로 한 기존유전으로부터의 原油生産은 현재의 하루 40만 배럴에서 90년에 同 32만 배럴, 2000년에 同 17만 배럴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新規供給源으로서는 쿠퍼分地 등에서의 석유개발이나 오일 셸, 石炭液化등에 의한 合成石油의 공급이 기대되고 있다.

2000년에 있어서 石油供給량인 하루 77만 배럴 중에는 오일 셸이 하루 30만 배럴, 石炭液化가 同 5만 배럴정도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2000년에는 石油의 자급율은 상당히 상승할 것으로 보이나 결국은 90% 수준에 그쳐 완전한 自給은 계속 어려울 것 같다.

오일 셸에 대해서는 議會의 회기중에 엑슨社가 랜돌·프로젝트의 파일로트·플랜트의 코스트가 당초의 7억 달러에서 21억 달러로 대폭 상승되었다는 이유로 이 프로젝트의 추진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겠다고 발표해 관계자에게 쇼크를 주었다. 의회에 출석하고 있던 연방정부





의 카리크 國家開發에 에너지相은 勞動黨의 에너지 담당 키딩議員으로부터 오일 쉘문제에 대한 対応은 與黨정부의 에너지정책의 실패라고 신랄한 비판을 받기도 했다. 오일 쉘에 대해서는 투자규모 뿐만 아니라 기술면에서도 문제가 남아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다.

代替에너지로 각광을 받고 있는 石炭이나 煤에 관한 濠洲의 煤의 유망성은 의문의 여지가 없는 것 같다. 80년의 石炭생산은 7천 4백만톤으로 이 가운데 4천만톤이 수출되었다.

정부기관인 조인트·콜·보드의 展望으로는 石炭의 생산이 2000년에 2억 9천만톤 내지 4억 6천만톤, 수출은 1억 8천만톤 내지 2억 9천만톤으로 크게 증가할 것으로 내다 보고 있다.

에너지政策面에서 중요한 것은 石炭, 煤, 煤 등의 사업에 관한 外資규제이다. 探鉞 단계에서

는 100% 外資가 허용되나 生産 단계에서는 煤 25%, 石炭 49%라는 外資比率의 가이드라인이 적용되고 있다. 카리크 에너지相은 濠洲의 국가이익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신축성있는 정책을 취하겠다고 밝히고 있으나 外資規制의 운용은 점차 강화될 것 같다.

LPG (液化石油가스)에 대해서는 濠洲는 日本 등에 상당량을 수출하고 있으며, LNG (液化天然가스)에 대해서도 西北대륙봉으로부터의 수출이 오는 86년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煤의 생산은 국제원자력기관의 전망도 현재의 6천톤U에서 2000년에 2만톤U로 증가하여 美國에 이어 세계 제 2위의 煤 생산국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와 같이 石炭, 煤, 煤 등의 代替 에너지의 공급면에서 볼 때, 濠洲의 중요성은 점차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濠洲의 資源 분포도

